

# 기업인과 공정거래 제도

노병용/롯데백화점 이사

지난 1981년 4월,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로 15년을 맞이했다. 공정거래법은 우리 경제가 2차산업에서 3차산업의 이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거래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로서, 항상 '보이지 않고 실제적인 분쟁처리만 하다보니 공정 거래 제도에 대해 일반인은 잘 모를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대표적으로 기여한 것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 ② 경제력집중 억제 ③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등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여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산파 역할을 해왔다.

더구나 정부가 오는 3월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장관급 부서로 격상시키기로 한 것은 그만큼 성숙 단계에 있는 우리 경제의 파수꾼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본글에서는 어언 15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역할을 다해 준 공정거래 제도의 역할과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유통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추진

공정거래법은 날로 심화되는 경제력집중의 억제 완화를 위하여 1987년 4월 1일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 총액의 제한 및 상호지급보증 등의 제한 등 몇 가지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에는 경제력집중 현상은 개선됨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다가 가끔 언론등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은 경제력 집중완화에 가장 기여한 제도로 평가된다.

일례로 1994년 4월 현재 30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순자산 대비 타회사 출자 비율은 26.8%로서 1987년 3월, 제도 시행 당시의 44.8%보다 현저히 낮아졌으며, 1993년 4월의 28.0%보다 1.2%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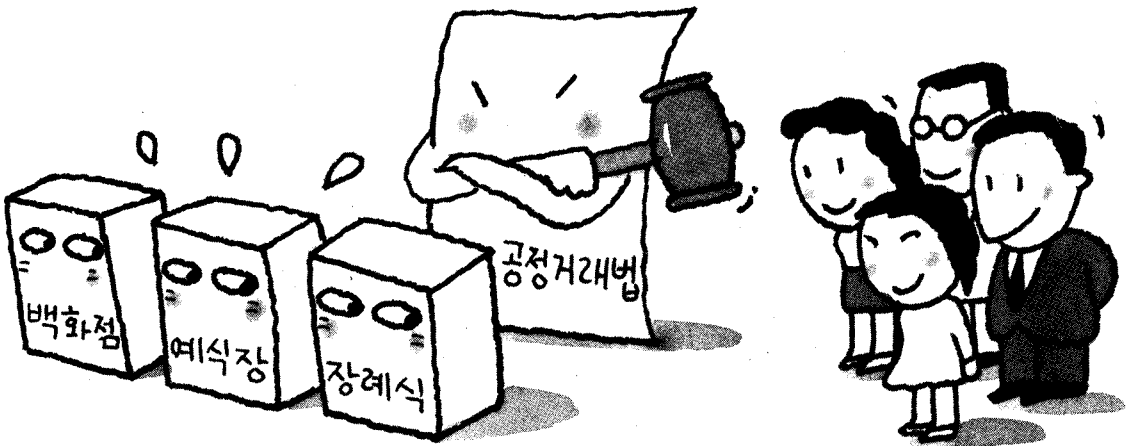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 시정

특정시장에서 독과점 위치에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은 경쟁시장 상태보다 높은 가격으로 적은 양을 공급하게 되면 보다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들의 독과점 위치에서 오는 추가 이윤은 소비자 잉여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어 소비자들은 희생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사업자들의 이러한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은 일반 사업자들이 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금지시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섰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부당한 약관의 시정

약관은 그 사업자가 불특정다수라는 특성 때문에 이해 관계인이 많고 그 효과 또한 매우 큰 분야라 하겠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최근 주택임대차법, 헬스클럽 및 골프장 약관, 항공기 예약, 기차·버스의 운송 약관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부당한 조항을 시정 조치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면 거의 패소한 경우가 많았고 감히 개인의 생각으로는 엄두도



못냈던 사안을 공정거래 제도의 힘이 발휘된 곳이다.

###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

지난 15년간 공정거래법 시행 과정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분야가 있다면 불공정거래 행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이라 하겠으며, 아마 일반 국민들도 공정 거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들었다면 이 분야가 가장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법시행 초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시정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교육·홍보 효과가 컸던 이 제도는 최근들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 활동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행 초기의 강한 부작용 사례가 점점 적어져 하나의 습관화가 되고 상거래의 기본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공정거래법의 기여도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병존 역할

밀림지대를 관찰해보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즉 먹이 연쇄와 생태계는 적절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의 경제활동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모든 분야를 다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엄청난 실업과 경제의 괴리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막아 준 것이 바로 공정 거래 제도였다.

대기업은 세계와 겨루어서 국력 신장의 근간이 되어야 하며, 굳이 중소기업이 해도 될 것을 대기업이 한다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정거래 제도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 건설하도급 시행령 등 각종 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일정한 기능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왔다.

지금까지는 지난 15년간의 공정 거래 제도가 우리 경제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기술했다. 다음에는 필자가 유통업에서 종사하며 느꼈던 바람이나 아쉬웠던 점의 기술했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이제 세계 14대 무역국이 될 정도로 커졌다. 경제의 규모에 걸맞는 법의 제정과 운용이 있어야 그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보장된다고 할 때 현 공정거래 제도는 과연 이런 법목적적(法目的的)인지 아닌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 제도 자체의 운영이 처벌보다는 반성의 계기가

기업에서 일단 공정 거래에 위배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참담한 입장이 되곤한다. 확실한 잘못을 가리기전에 온갖 매스컴을 통해 이미 잘못으로 인식되고 소비자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즉 실사를 통해 잘못을 명심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제도 자체가 당초와는 달리 일반 기업에서는 무조건 기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십만 종의 물건이 생산·제조·판매되는 시점에 굳이 판매 시점만을 감독 소홀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지금은 이런 면에서 매우 진보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일반 기업의 공정 거래에 대한 예측성을 주고 있지만, 더욱 공정거래 제도 운용에 융통성을 발휘하며 국민과 기업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까이 하고 싶고 지도와 계몽받기를 원하는 친근한 제도로 발전했으면 한다.

###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한 공정거래 제도 의식 배양

일단 사업장에 공정 거래 제도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러 온 경우 조사를 받는 담당자나 종업원들은 공정거래 자체에 대한 개념 설정과 마인드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종업원에게 계몽과 교육적 차원의 운용으로 우리의 반대편이 아닌 우리편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를 바란다.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세심한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왜 필요하고 왜 지켜야만 하는 가를 담당자 스스로가 깨우쳐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이 홍보하고 교육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 적발·조치등 과격한 표현은 시정돼야

우리의 법률 용어를 보면 일본식 한자 표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딱딱한 표현이 많다. 형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정 거래에 관련한 용어가 매우 딱딱하다고 본다. 매스컴에서 발표할 때 적발이니 경고조치니 하면서 엄청난 죄를 지은 형사범처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법의 취지가 사람은 사회에 실수가 있으니 잘 해보자는 것인데 표현되는 용어는 살벌한 느낌이 드니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젊은 남자 종업원과 갓 학교를 졸업한 여직원이 지레 겁을 먹고 고객에 대한 자연스런 서비스마저 위축될까

우려된다.

### 공평한 법집행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약자에 대해 한없는 동정을 표시했고, 강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정서가 깔려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외세 침입 등의 요인도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러한 배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유통업에 있어서도 약자 측에 속하는 동네 슈퍼나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일어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고, 대형 백화점에서 발생한 일은 사안이 크든 작든 백화점 측의 잘못으로 인식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 중소 제조업자나 일부 제조업자의 잘못된 생산·판매 행위까지 판매 장소가 백화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백화점이 욕을 먹게 되는 경우는 참으로 억울하다. 물론 그러한 상품의 하자를 사전에 확실히 체크해야 하지 않는다면 변명할 수 없겠지만 ...

처음부터 공정 규약을 위반하겠다는 의도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대형점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대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대형 백화점의 명성이 일부 매장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더럽혀지길 바라는 곳은 아무도 없음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물론 근본적인 위법 사항이나 고의성 있는 공정 거래 위반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하겠지만.

우리 나라에 공정 거래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고, 이제는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분의 합리적인 방향이 모색될 수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유통업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의 소망이라면 이처럼 큰 매장, 많은 거래선, 그리고 수천 명의 종사자가 함께 어울려 영위되는 집합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와 큰 잘못이 제대로 가려져 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